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4호 【루계 제26028호】 주체107(2018)년 6월 3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바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

나는 당신의 생일 87돐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꾸바공산당과 인민이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개척한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세대를 이어 변함없이 전진시켜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동지적우의와 친선의 전통이 앞으로도 훌륭히 계승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 정 은

주체107(2018)년 6월 3일 평양

《조선 북부핵시험장 폐기, 평화애호림장은 확고부동》

세계언론들 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이 완전히 폐기된 소식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세계언론들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이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핵무기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핵시험장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붕락시키고 갱도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동시에 현지에 있던 일부 경비시설들과 관측소들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지상의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고 해당 성원들이 철수하는데 따라 핵시험장주변을 완전폐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꾸바신문 《그란마》는 조선이 핵시험장을 폐기하였다, 핵무기연구소 성명에 의하면 방사성물질루출현상은 없었다고 한다, 핵시험장폐기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에 따라 진행되였다고 보도하였다.

인디아신문 《힌두스탄 타임스》는 이렇게 전하였다.

국제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몇차례의 거대한 폭음이 울리고 북조선의 핵시험장은 완전히 폐기되였다.

북조선은 핵시험장의 폐기를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평화애호적립장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조선의 핵무기연구소 성명은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핵시험장폐기를 통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공화국정부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이 다시한번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지적하였다.

핵시험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공화국은 앞으로도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세네갈인터네트신문 《세네웨브》는 공화국 북부핵시험장폐기상황을 국제기자단 성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취재촬영한데 대해 지적하였다.

중국보도망, 몽골의 몬짜메통신, 라오스통신, 인디아의 신문들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디안 엑스프레스》, 《힌두》, 《에이션 에이쥐》, 《아시아 카바르 데일리》, 인디아—아시아통신, ANI통신, 지뉴스TV방송, NDTV방송, 수리아의 사나통신, 신문들인 《알 바아스》, 《티슈린》, 중앙TV방송, 일본의 NHK방송, 메루신문 《엔 꼬메르씨오》, 베네수엘라의 신문들인 《엘 우니베르쌀》, 《울띠마스 노띠씨아스》, 뗄레쑤르TV방송, VTV방송, 브라질신문 《오라 도 뽀보》, 중앙아시아인터네트통신 씨에이—뉴스와 민주꾸바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에스빠냐 바스꼬주체사상연구소조 인터네트홈페지들을 비롯한 세계언론들이 《북조선 핵시험장 폐기》, 《조선 북부핵시험장 폐기, 평화애호립장은 확고부동》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내용들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력자강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의 생활력 과시

전국적으로 30여개의 단위가 모범과학기술보급실 쟁취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직총중앙위원회와 각지 직맹조직들에서 모범과학기술보급실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직총중앙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기술발전에 이바지한 30여개의 단위가 모범과학기술보급실을 쟁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직맹조직들에서 모범과학기술보급실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직맹조직들에 모범과학기술보급실쟁취운동과 관련한 요강을 내려보내주고 이 운동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을 짜고들었다.

각급 직맹조직들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과학기술보급실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종업원들을 지식형근로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통하여 과학기술로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로동자창의고안명수, 발명가대렬을 급속히 늘이기 위한 사업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였다.

이 과정에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 과학기술보급실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의 중요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되였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는 원격강의실과 전자열람실, 도서열람실 등을 갖춘 수백㎡의 과학기술보급실을 훌륭히 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과학기술보급사업, 원격강의를 정상화하고있으며 생산현장에서도 과학기술학습을 할수 있게 구내망에 의한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았다. 결과 새형의 고치절면제거기, 자전거자동온도조종장치를 비롯한 수백건의 발명과 창의고안을 생산에 받아들여 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계획화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매달 3차이상 정상적으로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자기 직종에 맞는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하였으며 백수십명이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강의를 받을수 있게 하였다. 공장과학기술보급실 자료기지에 구축된 수십만건의 과학기술자료들을 학습하는 과정에 종업원들은 열수축기를 자체로 만들어 설치함으로써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2배로 높인것을 비롯하여 화장품의 생산성과 질을 개선할수 있는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내놓게 되였다.

중앙정보통신국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에 정보통신부문의 과학기술자료들을 소개한 직판물들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연구제작한 각종 설비, 기구들, 직관교육에 리용할수 있는 수십점의 중요부속품도안을 게시하여 과학기술학습에 대한 종업원들의 열의를 높여주고 경쟁심을 북돋아주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계획을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무조건 집행해나가도록 장악통제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함으로써 수많은 발명가, 창의고안명수들을 배출하고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여러차례 특등을 쟁취하였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종업원들을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설비현대화와 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지난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평가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원산구두공장에서는 당에서 품들여 꾸려온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이 거기에서 원격교육대학강의도 받고 세계적인 신발공업발전추세를 환히 꿰뚫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과학의 위력으로 생산을 더욱 장성시킬수 있게 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서는 두해전 현지지도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종업원들을 지식형근로자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으며 생산활성화에도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사리원대성타올공장, 함흥제분공장에서도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는 한편 운영을 짜고들고있으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에서 혁신을 이룩하고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보급실운영에서 모범적인 대동강식료공장, 평양카방공장, 온천식료공장, 삭주군의약품관리소, 삭주식료공장, 통흥산은하피복공장, 오가산자연보호구관리소, 회천제사공장, 전천군산림경영소, 전천군상업관리소, 청진자동화기구공장, 포항은하피복공장, 사리원은하피복공장, 승호군송배전소, 경암산은하피복공장, 원산통신기계수리공장, 온천대성식료공장, 국가과학원 진성사업소, 평양이동통신운영국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모범과학기술보급실을 쟁취하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전사회적으로 과학중시열풍이 몰아치고있는 때에 이룩된 이 성과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본사기자 김향란

공작기계생산성과 확대

구성공작기계공장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구성공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면서 공작기계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과 비약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공작기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일군들은 자력갱생과 과학기술혁신과 비약의 원동력으로 들어쥐고 공작기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정치사업무대를 틀어쥐는 전투장으로 옮기고 정치사업도 하고 집권 문제도 풀어주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적극 발동하였다.

공장참모부에서는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매일 맡은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온 공장이 공작기계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공장에서는 단조직장의 소재가열로에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원료소비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2배이상 높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일군들은 단조직장과 열처리직장을 비롯한 생산단위들에서 전기를 쓰지 않고 공업용수를 보장할수 있는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도록 하였다.

자재보장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공작기계생산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집중적인 수송전투를 벌려 생산에 필요한 많은 량의 석탄을 실어들인 성과에 기초하여 계속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혁신의 불길은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주물직장과 단조직장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주물직장과 단조직장의 초급일군들은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깊이 새기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신심드높이 분발해나선 로동자들은 매일 맡은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특히 주물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공작기계생산에 필요한 주물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현대적혁신의 불길은 가공부문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1가공직장과 5가공직장, 6가공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현대적인 공작기계를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여러대의 CNC공작기계를 비롯한 많은 공작기계를 생산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일군들은 지난해에 이룩한 기술혁신성과들을 총화하고 긍정적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기술자들이 첨단돌파전에서 앞장서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설계연구소의 기술자들은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열정과 투지를 안고 현대적인 정밀선반을 개발하고 제렬생산에 들어가기 위한 연구사업과 기술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성과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자각을 안고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일터마다에서는 새로운 위훈이 창조되고있으며 공작기계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도입

채취공업성산하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이 최근 몇달동안에만도 백수십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현실에 도입하였다.

문평제련소의 기술집단이 회전배소로법에 의한 생산공정을 확립하였다. 종전에 리용되던 많은 설비들을 대폭 축소하고 전력소비를 훨씬 줄이면서도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이 공정은 경제적리익이 대단히 크다.

상농광산에서도 배소, 침출공정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고 많은 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짧은 기간에 습식동제련공정을 꾸려놓았다. 이와 함께 광산의 기술자들은 능률높은 수리용지구를 만들어 유색광물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온파광산의 기술집단은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동밑에 수직깔때기식채굴방법을 개발해냄으로써 광석생산량을 종전에 비해 3배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강선광산기계부속품공장에서 만들어낸 여러 구경의 착암기용 정머리는 수입산 정머리보다 오래동안 쓸수 있고 착암능력이 높은것으로 하여 도입단위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동암광산과 쌍룡광산의 기술자들은 지방에 흔한 흰토로 저품위광석의 정광실수률을 최대로 끌어올릴수 있는 부선시약제료를 추출해내는데 성공하였다.

광산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집체적지혜를 합쳐 짧은 기간에 로력을 절약하고 설계의 정확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광산설계프로그람을 내놓았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간다.
—조선인민군 하태룡소속부대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상반년 인민경제계획 지표별로 완수

경성도자기공장에서

경성도자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년초부터 힘찬 생산돌격전을 벌려 지난 5월말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공장에 뜻깊은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도자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일 열의를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년초부터 줄기찬 생산돌격전을 벌리였다.

일군들은 원료보장대책을 적극 따라세워 생산을 정상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량을 훨씬 늘이도록 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여러가지 명시있고 쓸모있는 도자기제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공장기술집단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탐구도입하여 수십종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였다.

도자기생산전투가 고조되는데 맞게 당조직에서는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완수작업반들이 날을 따라 늘어났다. 종합작업반, 생질작업반, 창작작업반을 비롯한 작업반들에서는 공정별과학기술저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도자기생산을 무쩍 늘이였다. 또한 새로운 소성로보온방법을 받아들여 로의 열방출을 훨씬 낮춤으로써 소성시간을 줄이고 단위시간당 생산량을 늘이였다.

내화물작업반, 경질작업반을 비롯한 작업반들에서는 합리적인 소성방법들을 탐구하고 로운전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보낼 제품생산을 단 한달동안에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생산의 첫 공정을 맡아나선 원료작업반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작업반들에 원료를 충분히 보장하였으며 공무직장에서는 부족되는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수십일이 걸려야 할 불분쇄기대보수를 한주일동안에 해제끼였다.

경성도자기련합기업소에서 도자기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었다.

청진철도국에서는 물동량수송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 공장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한몫하였다.

상반년기간 공장에서는 굴식소성로종합지령실을 훌륭하게 꾸리고 부분별시운전을 진행하여 석탄가스화에 의한 도자기생산공정확립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특파기자 리은남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31)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승리자의 대회

사회주의강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쳐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벅찬 숨결인양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세찬 붉은기가 거세차게 휘날리고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조국의 전진에 활력을 더해주는 그 세찬 파력임소리에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며 우리는 3대혁명심화발전시기판을 참관하였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참관자들과 함께 3대혁명심화발전시기판의 첫 호심에 들어서는 우리 앞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라는 글발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벽면에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의 귀전에 그날의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 제5차대회는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력사에서 공업화의 위대한 승리의 대회,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대회로 불리울수 있을것입니다.》

주체59(1970)년 11월 2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온 나라와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성대히 개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우리 당과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추억의 노를 저어가는 우리의 가슴은 후덥게 달아올랐다. 당대회에 내놓으실 보고를 준비하시며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던것이다.

이 땅에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건설하고보니 40여년전에 어버님으로부터 아버님께서 쓰시던 두자루의 권총을 넘겨받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권총을 주시면서 기어이 조국을 해방시켜달라는 아버님의 유언을 알려주시였고 그후 우리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일제놈들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해방하고 인민들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인민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하였다. 그때서 우리는 이번 당대회보고에 인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을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으로 제기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가운데서 가장 큰 선물로 될것이다.…

이런 숭고한의지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 보고에서 6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공업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앤 좋은 나라를 만들어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도록 할데 대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새롭게 제시하신 어버이수령님,

이 소식은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공업화 완수, 현달아 인간완전해방에로!》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데 대한 과제를 일정에 올린 조선로동당의 활동은 특별히 주목할만하다.》…

세계가 격찬하였듯이 3대기술혁명과업은 근로하는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일관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술혁명이였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으로 일관된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는 강사의 해설은 우리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겨주었다.

위대한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망에 있어서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이 고금동서 그 어디에 있었던가.

이 위대한 력사적과제를 안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새겨가신 애국헌신의 자욱을 감동깊게 보여주는 불멸의 화폭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숭엄하게 해주었다.

주체60(1971)년 2월 희천공작기계공장(당시)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평범한 로동자와 담화를 하시는 영상사진문헌앞에서 우리는 쉬이 발길을 떼수 없었다.

사회주의공업화가 완성되고 경제건설이 본격화되던 그 시기 어디서나 요구하는것이 공작기계였다.

혁명앞에 어려운 과제가 나설 때마다 언제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6개년계획수행의 첫해에도 북방의 세찬 눈바람을 맞으시며 희천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고 하면서 강사는 그날의 사연을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한 제대군인로동자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공장에는 언제 들어왔으며 금수면에 따르는 생활비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 로동자는 급수면에 따르는 생활비는 잘 모르겠다고, 자기들은 그런데는 흥미가 없고 다만 혁명에 충실할 생각뿐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로동계급이 얼마나 좋은 계급인가고 하시며 모두가 이들의 혁명성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여러 작업현장들을 돌아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좁은 공작기계 1만대생산에 대하여 생각하시였다. 공장에서 전해에 생산한 량의 4배 이상이나 되는 과제였기때문이였다.

공작기계만 있으면 뜨락또르도 더 생산하고 경공업공장도 더 건설할수 있으며 모든것을 더 만들수 있다. 그런데 이제 기계공장을 새로 건설하여 공작기계를 더 생산하자면 너무 늦다, 지금 있는 토대를 가지고 공작기계를 더 만들수 없겠는가를 생각해보라고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절절한 교시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의도를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선 희천의 로동계급은 1만대의 공작기계생산을 대담하게 결의해나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믿음과 사랑은 그대로 기적창조의 원천이 되였다.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불꽃튀는 천리진군의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희천의 로동계급은 1만대이상의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온 나라 공장, 기업소들을 찾고 찾으시며 새로운 기적과 비약에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떠받들리여 구성을 비롯한 여러 공작기계생산기지들에서도 새로운 기적들이 련이어 이룩되여 온 나라를 흥성이게 하였다. 구성땅에서 창조된 기적을 소개한 당시의 《로동신문》 기사가 벽면에 전시되여있었다.

《구성땅에 높이 오른 또 하나의 승리의 개가!

수령님 탄생 예순돐을 맞으며 천리마구성공작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이 드리는 충성의 선물 1만 20대의 공작기계를 생산》…

온갖 보수와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시며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당이 맡겨준 과업을 결사관철한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이 력력히 어려오는 전시된 자료들앞에서 참관자들은 눈길을 떼지 못하는것이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전세대 로동계급이 발휘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투쟁해나갈 드높은 열의가 비껴있었다.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켜주는 자료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며 참관을 이어가면 우리는 주체62(1973)년 10월 자동화설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가장 많이 남아있던 황철을 자동화의 본보기로 꾸리시어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강사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황철의 자동화추진과정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던 때에 있은 일이다.

보다 복잡한 생산공정들로 이루어진 소결로직장의 자동화는 막대한 자금을 요구하였다.

일군들은 주저하지 않을수 없었다.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여겨졌던것이다. 결국 그들은 먼저 잠는 공정만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하려고 생각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시였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먼저 보는 원칙에서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자동화전법은 자본가들이 하는 돈중심전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중심의 전법, 주체의 자동화전법이라고 그 특징을 명백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런 숭고한 사상과 리념에 기초하여 실현된 황철의 자동화이기에 세월이 멀리 흐른 오늘에도 그 나날의 사연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가슴 뜨거움에 젖어드는것 아닌가.

한점의 불씨가 거세찬 불길로 타번지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황철에 지펴주신 자동화의 불길은 전국의 야금공장들과 나아가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로 세차게 타번지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만이 우리 인민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 3대기술혁명을 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자력갱생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것이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견지하신 원칙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력적인 령도로 청산리를 비롯하여 온 나라 협동벌들에 농촌기술혁명의 불바람이 일어번지는 속에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다.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것을 3대기술혁명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녀성들이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가정일과 부엌일을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응당한것으로 간주되여왔으며 당사자들인 녀성들 자신도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다.

허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그것을 녀성들이 걸머지고있는 2중적부담으로 여기시며 그 해결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 숭고한 사랑속에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식료공장들과 밥공장 등 수많은 식료품생산기지들이 일떠서게 되였다.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던 그때의 숨결을 그대로 안은듯 하여 우리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력사적인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혁명과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던 력사의 나날들을 깊은 감회속에 돌이켜보며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다.

글 본사기자 채 희 성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기적창조의 원천 크나큰 믿음, 값높은 평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에서 혁신의 믿불이 되고 비약의 송풍기가 되여 대고조전역에 활력을 부어주고있는 우리 일군들,

인민들속으로 깊이 들어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이 있을세라 살뜰히 보살피며 보다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며 우리 일군들을 인민의 충복으로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70일전투기간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경제건설성과를 두고 세상사람들은 《기적이다!》라는 한마디말로 표현하였다.

그 거창한 기적을 창조한 원천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밤 탄광막장에서 탄부들을 고무추동하며 실적을 올리던 한 도의 책임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로 찾으신다는 련락을 받았다.

치렬하게 전투가 벌어지던 때인지라 그는 도인의 중요생산단위들의 전투과제수행정형이 적힌 사업일지를 펼쳐들고 송수화기를 정히 들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살림집배정정형에 대하여 물으시는것이 아닌가.

그는 인사 대답을 올릴수가 없었다. 70일전투가 시작되지마자 막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생산실적에만 전심하였기때문에 주택배정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던것이다.

그의 이런 심중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살림집을 해결받아야 할 세대수를 알아보고 빨리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간곡한 어조로 이르시였다.

통화가 끝났지만 일군은 굳어진듯 자리를 뜰념을 못하였다. 여직껏 경제건설전투라고만 여겨오던 70일전투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음미해보게 되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가 과연 무엇인가. 순간 이런 충격이 번개치듯 뇌리를 쳤다.

당일군이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과 낮이나 밤이나 함께 지낸다고 하여 모든 일이 당의 의도대로 되는것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0일전투에서도 눈앞의 실적보다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를 풀어주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는것이였다.

그 숭고한 뜻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일군은 즉시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다음날 도안의 중요전투장들에 동원되였던 도시경영부문의 로동자들이 살림집건설과 보수전투에 일제히 진입하였다. 비가 새거나 불이 잘 들지 않아 애를 먹던 적지 않은 살림집들이 새 집처럼 보수되였다. 그리고 수십세대가 새로 건설된 살림집에 입사하였다.

이제로운 세집들이 풍경, 기쁨에 넘친 인민들의 웃음소리, 더 큰 활력에 넘쳐 끓어번지는 전투장들…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헌신하는 일군들로 하여 70일전투의 전구들마다에서 기적과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70일전투는 정녕 거창한 경제건설대전인 동시에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한 투쟁으로 전당이 끓어번진 인민복무전이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숨하에서 혁명을 알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성장한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답게 보다 큰 승리에로 부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우리 인민의 정신력은 그 한계를 모른다.

강원도인민들이 당이 안겨준 무비의 담력과 정신력을 발휘하여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원산청년발전소를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어느해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도의 책임일군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새해벽두부터 그것도 찬바람부는 추운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 도를 찾으시였으니 어찌 격정에 목이 메지 않을수 있었으랴.

바람이 사정없이 옷섶을 휘여감는 속에서도 발전소의 외부와 내부를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수력발전소들이 일떠선데 이어 원산청년발전소까지 완공됨으로써 강원도에 강력한 수력발전기지를 형성함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드디여 빛나게 실현되였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강원도인민들의 정신력이 대단하다고, 원산청년발전소는 강원도인민들의 정신력의 산물이며 그 결정체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너무나도 과분한 치하의 말씀에 도의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그 정신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것이라고 말씀올렸다.

정녕 그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아니였더라면 어떻게 거창한 건설을 도자체로 해제낄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운 공로를 고스란히 도의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며 평가의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강원도인민들은 눈물겨운 악전고투를 벌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력갱생의 선구자들이며 불굴의 투사들이다. 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발전소건설과정을 통하여 높은 정신력의 소유자, 자력갱생의 선구자들로 되였으니 그보다 더 크고 귀중한 재부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에서는 뜨거운것이 소리없이 흘러내리였다.

돌이켜보면 발전소건설구상을 펼쳐주시고 발전소언제건설장에도 사랑과 믿음의 자욱을 새기시며 크나큰 고무를 주시였을뿐아니라 성능높은 수많은 륜전기재들을 보내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에 받들려 일떠선 발전소가 아니던가.

그런데도 오히려 도의 인민들을 높이 평가하시며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는것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앙과 다른 도의 일군들도 여기에 와보면 누구나 다 강원도일군들의 일본새에 감탄할것이라고, 원산청년발전소를 참관시켜 강원도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얻은 투쟁경험과 교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인 사업방법, 일본새를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새겨안는 일군들의 가슴에서는 이런 진정이 터져나왔다.

강원도인민들을 정신력의 강자, 자력자강의 투사로 키워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본사기자 김 철 혁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강원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강원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비상히 앙양된 청년들의 열의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보다 드세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청년들모두를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억세게 준비시켜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눈부시게 비약하는 우리 조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청년들을 부르고있습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우선 도안의 모든 청년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어디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명광혁1비서를 비롯한 위원회안의 일군들부터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로작학습을 심도있게 진행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있다. 이와 함께 도안의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사상교양의 기본내용으로 틀어쥐고 실속있게 진행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세포, 통천, 문천을 비롯한 많은 시, 군청년동맹조직들에서 위대성도서들을 비롯한 당적출판물들을 통한 해설선전사업을 자기 단위 실정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벌려나갔으며 학습회와 강연회 등 교양체계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그 실효를 최대한으로 높여나갔다.

지난 3월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원산청년회관에서 도안의 초급선전일군들의 강습을 의의있게 진행하여 모든 청년동맹초급선전일군들이 자기들이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깊이 명심하고 청년교양에서 책임성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도안의 대학,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로 철령에로의 답사행군을 조직하여 그들모두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한생을 쌍그리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어렵고 힘든 초소에 달려가 삶을 빛내일 맹세를 굳게 가다듬도록 하였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도안의 모든 청년들이 만리마속도창조로 혁명적인 총공세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당중앙이 그어준 승리의 화살표를 따라 질풍같이 돌진해나가는 시대의 영웅, 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화선선동, 화선선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가고있다.

황혁, 최장미동무들을 비롯한 도청년동맹일군들은 직접 해설대를 붙고 원산구두공장, 고성군민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도안의 주요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시대정신이 창조된 력사의 땅의 청년들답게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도 전국의 앞장에 서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데 대한 내용으로 해설선전사업을 진행하였다. 통천군청년동맹조직에서도 10여명의 청년동맹일군들로 기동예술선동대를 붙고 도수산사업소건설장을 비롯한 군안의 주요전투단위들에 나가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청년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선동활동을 맹렬히 벌렸다.

도청년동맹위원회와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의 사상교양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도안의 청년학생들의 사상정신상태는 비상히 앙양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많은 백도라지와 목란꽃나무,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기증하였으며 원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쳐졌다. 또한 수많은 청년들이 당의 유일사상교양거점들을 정중히 꾸리고 관리하는 사업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쳐갔다.

천내군 룡전협동농장의 10여명의 동맹원들은 농장에 살고있는 전쟁로병에게 친혈육의 정을 키울이고있으며 문평제련소 로동자 안명복동무는 매일이다싶이 20여리길을 오가며 특류영예군인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원산시 와우동에서 살고있는 특류영예군인의 한생의 길동무가 된 문천시 장공장 로동자 김수향동무를 비롯하여 도안의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것을 자기들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청년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할 일념으로 도안의 수백명 청년들이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으로 훌륭히 꾸린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건설장으로 탄원하였다. 또한 수많은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이 고성군민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도안의 주요전투장들에 달려나가 위훈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청년들의 대없이 앙양된 혁명적열의로 하여 오늘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도안의 모든 청년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만장약된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기수들로 억세게 키워나가기 위한 도청년동맹위원회의 힘있는 사상교양사업은 날을 따라 더욱 더 심화되고있다.

본사기자 윤 명 철

박봉주동지

평양시안의 여러 부문 사업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기자재공장건설장, 평양향료공장건설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박봉주동지는 먼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과수분야에서 세계적패권을 쥘 야심을 가지고 과수업발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과수종합농장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박봉주동지는 또한 락랑구역 남사협동농장,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기자재공장건설장, 평양향료공장건설장을 현지료해하면서 농업부문에서 다수확농법의 하나인 벼강화재배방법을 비롯한 다수확농법을 적극 도입하며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한다는 립장에서 건설물들의 질과 공사속도를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동지 평양향료공장건설장 현지료해

국내원료와 자재로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

인민의 요구를 창조의 기준으로 삼고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의 경영활동을 투시해볼 때 주목되는 점이 있다. 새 제품개발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것이다.

자료적으로 보면 창립초기에 비해 제품의 가지수는 근 5배로 늘어났으며 현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150여가지의 맛좋은 당과류와 식료가공품들이 생산되고있다. 이것은 공장에서 해마다 수십가지의 새 제품들이 개발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생산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 공장일군들의 창조적인 일본새는 우리에게 보다 큰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의 평가, 인민들의 요구, 이것은 림순희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이 어제도 오늘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창조의 기준이다.

이곳 일군들에게는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인민들의 평가와 수요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절감하게 된 계기가 있다.

몇해전 솔장길에서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공장제품이 판매되는 어느 한 봉사기관을 찾았다. 판매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림순희동무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그 맛과 포장문제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손님들속에서 수요가 높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일군들이 찾은 교훈은 심각하였다. 불리한 생산조건을 운운하며 자재보장에 급급하고 맡겨진 계획이나 수행하는것으로 만족해온 지난날이 깊은 자책속에 들어가졌다.

높지 못한 인민들의 수요는 실무적인 문제만이 아니였다. 이것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것을 바라는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아들이였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가르는 시금석이였다.

솔장길에서 돌아온 일군들은 공장을 대표하고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부족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조건에서 계획을 수행하는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필요한 설비와 자재, 기술력량을 해결하겠는가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에 대한 지배인의 견해는 확고하였다.

우리의 제품은 공장의 얼굴이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였는가가 아니라 인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평가되여야 한다. 이것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내세운 창조의 기준이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을 위한 력량편성부터 지난 시기와는 새롭게 하였다. 기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설비제작력량이 무어지고 기술과장은 제품개발과 그 생산지도를 맡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 제품개발을 맡아 수행할 기술력량이 부족하였다. 공장에는 대학을 졸업한 기술자들이 불과 몇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하여 다른 단위의 도움을 받을수도 없었다.

여기서 지배인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이 잘한것은 종업원대중의 새 제품개발열의를 중시하고 그것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떠밀어준것이다.

일군들은 기능공들의 현장경험과 기술기능정도에 맞게 새 제품개발에서 비약을 가져올수 있는 창조적인 의견들을 많이 제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술과장을 비롯한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로동자들속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착상들이 빠른 기간에 실천에 도입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 사업에서 앞장선 로동자들은 적극 내세워주고 평가사업도 의의있게 진행하여 대중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였다.

그리하여 새 제품을 하나라도 더 내놓기 위해 모두가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하는 기풍이 온 공장에 차넘치게 되였다. 로동자들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식료가공부문의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탐독하며 지식의 탑을 더 높이 쌓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기술과장 염금희동무를 비롯한 기술일군들은 종업원들이 내놓는 기발한 착상이 성공에로 이어지도록 적극 도와주어 새 제품개발속도를 높일수 있게 하였다.

출퇴근길에서도 종업원들은 여러 봉사망들을 찾아 어떤 제품들이 수요가 제일 높은가, 인민들의 요구는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료해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일과로 여기고있다.

공장에서는 이 과정에 종합된 의견들을 분석평가하는 협의회를 주 1차씩 조직하였다.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이 사업이 가지는 실효는 컸다.

이런 협의회를 자주 할수록 인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정확히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결함적인 측면에 대한 퇴치방도를 찾고 보다 발전적인 새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인민들의 수요와 평가정형을 제때에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봉사단위들과의 정상적인 련계밑에 공장제품을 맛본 구매자들의 의견을 항시적으로 알아보고있다.

이 나날에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의 사색과 실천의 창조물인 새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작업반장들인 리옥선, 천정옥, 손철만, 박판명동무가 착상해낸 강냉이죽석국수와 영양파테기, 꿀대추단빵, 우유사탕을 비롯한 제품들은 그 질적수준이 높은것으로 하여 도적인 범위를 벗어나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사탕생산공정은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을 받았으며 《기름열매를 리용한 영양죽제조방법》에는 특허증서가, 근 20종에 달하는 공장제품들에는 2월2일 제품증서가 수여된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공장에서는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련이어 거두었다.

어디서나 이들처럼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여도 그것을 리용한 인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모든 사색과 창조의 출발점으로 여길 때 우리의 기술과 자원에 의거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수 있다는것을 공장의 현실이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심학철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신의주방직공장에서

생산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 활발

신의주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가치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공장일군들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과제들을 설정하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특히 여러 설비들을 제작, 개조하여 중폭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염색의 질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모를 박았다. 이와 함께 북직기를 공기식직기로 개조하는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일군들은 능력있는 기술자, 기능공들로 기술혁신력량을 편성하고 새 기술도입을 위한 투쟁에로 떠밀어주었다.

당조직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자재보장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틀어쥐고 작전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가고있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중요한 열쇠는 과학기술을 틀어쥐는데 있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설비들의 제작과 개조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이들은 중폭직기의 가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떠날음기를 자체로 만들었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할수 없이 두뇌전, 기술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이들은 중폭천의 염색을 보장할수 있도록 염색기를 개조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긴장한 전투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특히 자재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짧은 기간에 염색기를 개조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기 위해 열정을 합치였다. 공장일군들도 전투현장을 자주 찾아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즉시적인 대책을 따라세웠다.

현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기술자, 기능공들의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염색기개조사업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으며 공장은 중폭천의 염색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기술적토대를 갖추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북직기를 공기식직기로 개조하는 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경험도, 충분한 기술자료도 없이 진행하는 직기개조전투과정에 많은 기술적문제들이 제기되였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적은 투자로 경제적실리가 큰 직기를 만들어내는것이 생산활성화의 길이라는 애국의 일념안고 개조설계와 부분품제작을 동시에 내밀었다. 이미 한대의 북직기를 공기식직기로 개조한 공장에서는 그 경험에 토대하여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새로운 편직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선교편직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세계적수준의 다양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최근 선교편직공장에서 여러가지 날염장식을 한 남, 녀내의들과 활동에 편리하고 보기에도 좋은 운동복들을 생산하여 수요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얼마전 제9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에 출품된 편직제품들중에서 공장제품은 그중 수요가 높았다. 수요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선교편직공장 《갈매기》제품들이 형태가 다양할뿐아니라 색갈이 선명하고 세련되여 보기 좋다는것이 일치한 평가였다.

호기심을 안고 우리가 공장을 찾았을 때 지배인방에서는 여름철편직제품개발을 놓고 도안심의가 한창이였다. 도안심의에서는 새로 개발하게 될 여름철남녀속옷의 가지수와 시제품으로 생산할 도안들이 정해졌다.

기사장의 말에 의하면 시제품이 나오면 생산자들은 물론이고 경공업성 편직공업관리국 일군들부터 먼저 착용시험을 해보고 의견을 종합하여 완성한 후에야 제렬생산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에 여름철편직제품개발을 위해 도안으로 30여점이 창작되였는데 그중 시제품생산으로 정한 도안은 7~8점이라고 한다.

이 단위의 새 제품개발이 어떤 높이에서 진행되고있는가를 쉽게 알수 있게 하는 이야기였다.

공장일군들이 새 제품개발에서 제일 중시하고있는 문제는 바로 인민들의 수요부터 구체적으로 장악하는것이였다.

공장에서는 일군들이 평양제1백화점, 평양역전백화점에 자주 나가 공장상품들에 대한 리용자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도안가, 기술준비원을 비롯한 실무일군들이 많은 상업봉사단위들을 다니며 수요가 높은 편직제품들에 대한 형태와 색갈 등을 장악하고 분석하는 사업을 앞세워나가고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시대적추세에 맞게 새로운 색갈과 형태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제때에 알아야 새 제품개발을 보다 심도있게 벌려나갈수 있다는것이 공장일군들의 확고한 주장이다.

시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편직옷들을 끊임없이 개발해나가는데서 공장도안가들과 기술준비원들이 큰 역할을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도안가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도안실과 기술준비실 성원들의 기술학습을 함께 조직하고있는것이다. 이 계기를 통하여 도안가들은 설계에 대한 지식을 쌓고 기술준비원들은 도안에 대한 상식과 리해를 보다 깊이있게 하고있다.

올해에만도 10여종의 인기있는 새 제품들을 생산한 공장에서는 지금 여름철에 인민들이 즐겨찾게 될 새로운 편직제품개발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날로 높아가는 인민의 요구를 창조의 기준으로 삼고 피타게 노력하고있는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우리와 만난 박승룡기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새 제품개발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높아가는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편직제품들을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방법들을 계속 탐구하겠습니다.》

본사기자 리철옥

기능성식료품생산을 늘인다

백송종합식료공장에서

지난 4월말 지방공업성 인민소비품전시장에서는 제8차 도종합식료공장 제품전시회, 강냉이가공품품평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와 품평회에서는 전국각지의 많은 식료품생산단위들에서 출품한 제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스피룰리나를 첨가하여 만든 여러가지 기능성식료품들을 출품한 백송종합식료공장에도 상장이 수여되였다. 이 성과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기능성식료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쳐온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노력이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스피룰리나에는 사람과 동식물의 생리적기능을 높여주고 생장을 촉진시키는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여있다. 뿐만아니라 소화흡수률이 95%에 달하여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 영양식품으로 인정받고있다.

기능성식료품생산이 추세로 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공장에서는 여러해전 스피룰리나배양장을 일떠세웠다.

중요기능성식품원료인 스피룰리나를 자체로 배양할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놓았지만 당시까지만 하여도 공장에는 스피룰리나생산을 주도할만한 기술력량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 분야의 권위있는 과학자들의 방조밑에 영양가높은 스피룰리나를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는 기술력량을 구축하였으며 정연한 생산체계를 확립하였다.

그후 공장에서는 스피룰리나를 식료품생산에 적극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스피룰리나콩사탕, 스피룰리나겉과자, 스피룰리나국수가 련이어 개발되여 인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 평가를 질좋은 기능성식료품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것을 바라는 인민들의 믿음과 기대로 받아들이였으며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일군들은 식료공업부문에서 알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자주 조직하고 교환소와 상점의 판매원들로부터 스피룰리나식료품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월 1차 종업원들에게 알려주는 사업에 힘을 넣었다.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기능성식료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술기능수준제고를 위해 스스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스피룰리나식료품의 품종을 확대하는 사업에 너도나도 뛰여들었다. 그 과정에 스피룰리나단빵, 스피룰리나크림속빵을 비롯한 기능성식료품들이 계속 개발생산되게 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건강증진에 좋은 스피룰리나식료품들을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이 접근시키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스피룰리나싸락차와 같이 효능높은 기능성식료품을 개발하였다. 뿐만아니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게 스피룰리나를 첨부한 암가루도 개발하였다.

공장에서는 항암효과가 뚜렷한 피코시아닌을 스피룰리나에서 추출하여 기능성음료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태여난 식료품생산기지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좋게, 더 많이 개발생산하는데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김홍성

그날의 영광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강서약수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강서약수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영광의 그날로부터 1년이 흘렀다.

잊을수 없는 그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행복을 받아안은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그날에 다진 심장의 맹세를 지켜 산악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난 1년간 고결한 충정과 애국적헌신성,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며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모두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사관철하는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력사의 그날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약수생산량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킬데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강서구역당위원회에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높은 긍지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살며 일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공장초급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집행대책을 세운데 기초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였다.

일군들은 연혁소개실을 새로 꾸려놓고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공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깊이 심어주었다. 림선화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약수생산을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질을 개선하고 약수목욕탕을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전투를 림제천의 방법으로 밀고나갔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정열을 바쳤다.

일군들은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자재보장을 앞세우면서 공사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약수생산에서도 혁신이 창조되였다.

약수생산을 맡은 작업반원들은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지난해 11월말까지 약수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어머니당에 충정의 보고를 드리였으며 올해에도 련일 혁신적성과를 거두고있다.

약수의 질을 높이고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공장의 기술력량은 국가과학원의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약수병의 물높이를 일치시켰으며 련이어 약수산화장에 오존발생장치들을 도입하여 약수의 질을 현저히 개선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의 일군들은 약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정에 루실되던 많은 량의 탄산가스를 회수리용하여 실리를 보장하고있다.

생산건물개건과 새로운 생산공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공장의 종업원들은 생산도 건설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겠다는 열의밑에 교대시간을 마치고는 공사장에 달려나와 일터마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약수목욕탕건설도 통이 크게 전개되여 착공한지 몇달 안되는 사이에 새 건축물이 솟아나고 내부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적극성과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양되는 속에 수지병약수생산현장에는 탄산단물주입기와 탕액혼합기를 비롯한 새 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현대적인 탄산단물생산공정이 꾸려졌다.

원수장주변의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져 4종에 수천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새로 뿌리를 내려 공장의 주변풍치는 더욱 수려해졌다.

온하지도국의 일군들과 남포시당위원회 일군들도 적극 도와나섰다.

이 나날에 공장은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영예를 지니였다.

지난 1년간 백옥같은 충정과 보답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헌신해온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보람찬 진군길에도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대중의 생산열의를 적극 발양시켜

강남군 장교협동농장 제5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업생산장성의 열쇠는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최근년간 강남군 장교협동농장 3대혁명붉은기 제5작업반에서 해마다 농사를 잘 지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따라서 농장원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진것은 물론 근저으로 농사를 잘하는 작업반으로 소문을 내고있다. 비결은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농장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한데 있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이 로력일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인 사실을 보자.

사실 검상진동무가 작업반장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보당 알곡생산량이 높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그는 오랜 농장원들을 만나 담화도 하고 분조들에 내려가 실태를 료해하였다. 그 과정에 그는 알곡생산이 오르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높지 못한데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 문제를 놓고 그가 한길을 더 깊이 들어가 알아보니 로력일평가사업이 당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었다. 로력일평가사업이자 곧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며 나아가서 알곡생산성과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그는 2분조에 나갔다. 2분조를 로력일평가사업에서 전형으로 내세우고 그 경험을 따라배우게 하면 얼마든지 작업반의 정보당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기때문이였다.

분조의 실태를 료해한 그는 분조장과 함께 먼저 로력일평가성원들을 실력이 있고 책임성높은 농장원들로 선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이때 그가 특별히 중시한것은 평가기준을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한것이다. 한것은 농사조건이 같지 않기때문이였다. 실례로 한는배미안에서 여러명의 농장원들이 함께 김을 매지만 풀이 많이 나온 곳이 있는가 하면 적은 곳도 있는것이다. 이렇게 되여 그때부터 분조에서는 로력일평가를 할 때 로력일평가성원들과 함의를 보고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한 농장원에게는 로력공수를 더 주도록 하였다. 분조에서는 하루일이 끝나면 분조장과 로력일평가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농장원들의 로동의 량과 질을 구체적으로 분석종합하였다. 그리고 농장원별로 따져가면서 로력일을 정확히 평가하였다.

이렇게 하니 농장원들의 일본새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2분조에서 전환이 일어나자 그 경험이 온 작업반에 일반화되여 다른 분조들에서도 로력일평가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이 알곡생산성과로 이어졌다.

작업반초급일군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로동에 대한 정치적평가와 물질적평가를 바로하여 농장원들이 자각적이고 헌신적인 로동생활기풍을 세우도록 한것이다.

지난해 모내기전투때에도 작업반에서는 각종 직관물을 통하여 동지애를 발휘한 분조장은 물론 영농공정에서 앞서나가는 농장원들, 누가 보건말건 맡은 농사일에 전심전력하는 농장원들을 적극 소개선전하였다. 이 과정에 작업반원모두가 주인된 자각이 높아지는 속에 모내기전투가 최저기에 결속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작업반에서는 이와 함께 물질적평가를 따라세웠다. 이때 농장원들의 로력일을 순위별로 공시하고 그에 따라 물질적평가사업을 진행하여 뒤떨어진 농장원들이 분발하게 하였다. 결국 온 작업반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이 타번지게 되였고 그만큼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농장원들이 높은 생산적열의를 가지고 맡은 일에 전심할수록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친혈육의 정으로 대해주었다. 어느해인가 작업반장은 오랜 녀성농장원들에게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치마저고리 한벌감을 안겨주었고 한 분조장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병치료를 잘 받도록 성심성의껏 도와주었다.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미풍이 차넘치는 속에 농장원들의 생산적열의가 더욱 높아져 알곡생산이 늘어났으며 작업반은 혁신자집단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현실은 일군들이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 때 알곡증산으로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좋은일하기운동 활발히 전개

각지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알곡증산에 이바지하는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은 들끓는 협동벌에 나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청년들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는 한편 농촌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진행하고있다.

함경북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5종에 800여점의 소농기구를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올해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울림에 대한 당의 높은 뜻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울 일념을 안고 회령시 청년들은 여러t의 파비닐을 수집하여 만든 관개용수지관을 농촌들에 보내줌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온성군안의 청년동맹일군들도 20여개의 청년작업반, 청년분조들의 부림소영양판리에 필요한 2t의 물자를 보장하여 부림소들의 영양상태를 현저히 개선하고 당면한 영농과제들을 초과수행하도록 하였다.

평안북도의 수천명 청년들적대원들은 사회주의 푸른 전야에 더 많은 생명수를 보장할 애국열의로 가슴 불태우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총돌적전을 벌려 수십km구간의 강하천정리와 수로가시기를 단 며칠동안에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안악군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조직들을 발동하여 마련한 수천점의 부속품을 군안의 농장들에 보내주어 농기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간 갑산군의 청년동맹일군들은 힘있는 정치사업과 물심량면의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킴으로써 많은 트락또르를 수리하는데 기여하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자기들도 함께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은 각지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의 혁명적열정에 의해 물결쳐 영농전투성과는 확대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불타는 애국의 한마음안고 부강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기행

사랑의 자욱어린 땅에 락원을 건설해간다

화평군의 중소형발전소들을 찾아서

해발높이 1 000m가 넘는 아득한 령에서 시작된 자성강은 화평군의 크고작은 산발들을 꿰지르며 급이급이 흘러갔다. 두메산골의 특유한 정서를 자아내는 수정같이 맑은 물줄기를 따라 차를 달리는 우리의 마음은 즐거웠다.

화평군의 자랑중의 자랑인 중소형발전소들을 찾아 떠난 길이였다.

화평림산사업소가 자리잡은 중흥로동자구를 지나 또 한굽이를 돌아서니 깎아지른듯 한 절벽기슭에 한쪽떠이레무분을 물에 잠그고 독특한 뽀족지붕을 머리에 인 2층짜리 귀틀집형식의 건물이 나타났다. 부남청년발전소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과 보답의 의리가 있을뿐입니다.》

동행한 군의 일군에게 발전소가 참 보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자 그는 수십년전에 군을 찾아오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주신 자리라고 하는것이였다.

그 자리에 발전소를 건설하고보니 강폭과 물량으로 보나 또 경치로 보나 참으로 평당자리였다.

두메산골인민들의 생활을 걱정하시며 친히 발전소자리까지 정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가슴뜨거운 생각으로 눈시울이 젖어드는데 한 사람이 발전소건물에서 나와 우리를 마중했다. 부남청년발전소 책임자인 심경준동무였다.

부남청년발전소건설현장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오늘까지 이곳에서 일해온다는 그는 우리를 발전소건물로 이끌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9년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발전소가 건설된 사실을 아시고 멀고 험한 령을 넘어 찾아오시였습니다.》

그날의 못 잊을 사연을 전하는듯 발전소건물안에서는 발전기들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고 있었다.

조업하여 스무해가 되여오는 오늘까지 발전소는 한시도 멎어선적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물량이 많은 자성강흐름이 이 근처에 이르러 땅속에 잦아들었다가 샘처럼 다시 솟구쳐올라 령하수심℃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도 얼지 않는데만 비결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외진 산골에 사는 화평군인민들도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마운 은덕에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것으로 보답하려는 발전소종업원들의 충정이 용암처럼 뜨거웠기때문이였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자성강흐름을 따라 내려가는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또 하나의 발전소가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남청년발전소를 찾으시였던 그날 발전기를 돌린 물은 추운 겨울에도 일정한 구간에서는 얼지 않는다고 하시며 계단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하신 교시에 따라 건설한 부남2호발전소였다.

창백로동자구주민들이 이 발전소덕을 톡톡히 보고있었다.

자성강물결을 따라가는 기행길에서 우리는 화평군의 10여개나 되는 중소형발전소들가운데서 제일 능력이 크고 현대적인 발전소라고 하는 화평군민발전소에도 들려보았다.

일군의 말에 의하면 화평군민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남청년발전소를 다녀가신 후에 착공하여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하였다고 한다.

4단부벽아치식언제를 쌓고 토사수로와 물길굴을 통과한 물을 가지고 일정한 락차고를 얻어 발전기를 돌리게 하였는데 수백m나 되는 물길굴에는 회천발전소를 비롯한 나라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큰 몫을 맡아한 군인건설자들의 후더운 땀이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건설한 이 발전소에도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올해가 바로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화평군민발전소를 다녀가신지 꼭 1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발전기실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윤전공 김형진동무가 다가와 하는 말이였다.

발전소를 나서는데 맞은켠 산기슭에 뚜렷하게 써붙인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가 한눈에 안겨왔다. 그 하나의 구호에서 우리는 수도와 멀리 떨어진 두메산촌에서도 오직 당의 뜻대로만 살며 투쟁하려는 화평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벅찬 숨결을 생생히 느낄수 있었다.

읍지구를 가까이하면서 자성강의 흐름이 완만해지고 폭이 넓어지였다. 읍중심을 지나간 자성강기슭에서는 읍2호발전소 개건공사가 한창이였다.

거기에서 우리는 화평군중소형발전소운영 및 건설사업소 지배인 최경일동무를 만났다.

알고보니 그는 부남청년발전소언제설계를 비롯하여 군의 발전소언제와 발전기실설계를 도맡아해온 실력있는 일군이였다.

그는 화평군이 고향이다. 산골군의 평범한 가정에서 나서자란 그를 나라에서는 수도의 이름난 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었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은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이어졌으며 고향땅을 더 좋은 락원으로 가꾸어가는 줄기찬 힘으로 되었다.

자성강의 흐름을 따라가며 발전소들을 일떠세운 화평군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도 광광 돌리고 주민세대들의 전기난방화실현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여기에는 최경일동무를 비롯한 군중소형발전소운영 및 건설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같은 열정과 노력이 깃들어있었다.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발전소개건공사장을 돌아본 우리가 어둠이 깃든 밤이면 도시부럽지 않은 불밤은 벌천지를 펼쳐놓는 화평군에서 왜 또 이런 일판을 벌려놓았는가고 하자 최경일지배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의 은덕속에 옛날 화전민의 낡은 때를 완전히 털어버린 우리 화평군이 나날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고있습니다. 집집마다 전기제품들과 문화기재들이 늘어나니 전기수요도 날을 따라 늘어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중소형발전소건설전망에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의 귀전에 지금껏 들어본 중소형발전소들의 정다운 동음이 다시 울려왔다.

외진 두메산촌에 울려퍼지는 동음, 정녕 그것은 세세년년 변함이 없을 영원한 사랑과 보답의 노래,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아름답고 숭고한 메아리였다.

본사기자 허명숙

그들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

신포시 김진돌격대원들

항일의 혈전사에 고귀한 한페지를 아로새긴 투사의 이름이 새겨진 돌격대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기적과 혁신의 주인공들로 자라난 신포시 김진돌격대원들, 그들의 가슴속에 거센 용암과도 같이 세차게 끓어번지는 열망은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강의한 혁명적신념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 그들이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꿋꿋이 걸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진돌격대가 첫걸음을 내짚은것은 지금으로부터 두해전이였다. 돌격대명단에 자기들의 이름을 적어넣을 때 돌격대원들은 부모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들의 부모들은 한결같이 당과 조국을 위해 값높은 삶의 흔적을 남긴 위훈자들이였다.

그들이 처음으로 맡은 과제는 은덕원개건공사였다.

공사장의 곳곳에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그들은 련이어 새로운 작업실적들을 기록하였다. 천정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던 어느날 골재를 실어나르던 자동차가 고장으로 멎어섰다.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바늘바늘 타들었다.

이때였다. 한손에 붉은기를 틀어잡은 대장 박길성동무가 대오앞에 나섰다.

《무대의 돌격로를 한목숨바쳐 열어놓은 항일혁명투사 김진동지가 우리를 지켜보고있습니다.》

돌격대원들이 골재채취장으로 달려나갔다. 등에는 배낭을 지고 어깨우에는 마대를 둘러메고 골재를 나르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이렇게 돌격대원들은 은덕원개건공사를 끝낸데 이어 식료공장개건공사에서도 날마 날을 혁신으로 이어갔다.

그 나날 돌격대원모두가 무슨일이든 막히는것 없이 척척 해제끼는 능수들로 자라났고 조직과 집단의 귀중함을 알고 자기를 바치는데서 삶의 보람을 찾는 참인간들로 성장하였다.

돌격대원들속에서 발휘된 가지가지의 미풍들은 얼마나 감동적이였던가.

앓는 몸이였지만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작업장을 떠날수 없다며 이를 악물고 용접불꽃을 날려가던 박명일동무, 그의 가슴속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에서 값높은 위훈을 떨친 할아버지의 모습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돌격대원들의 맏누이가 된 심정으로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 가정에서 많은 후방물자들을 마련하여 사기를 북돋아주는 직맹초급일군인 리청남동무를 보며 사람들은 고지식하고 성실했던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관절염때문에 몹시 불편해하면서도 동지들에게 짐이 될것만 같아 남몰래 약을 먹으면서 작업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군 하는 서창건동무도 아버지처럼 값높은 삶을 자욱을 남길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보다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며 아낌없는 진정을 바쳐가는 김항동무의 소행은 믿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적시게 한다.

마음도 일본새도 몰라보게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당조직에서는 설맞이 모임 자랑무대와 혁신자축하무대에 남먼저 내세워주었다.

먼 후날에도 부끄러움없이 추억할수 있게 오늘의 하루하루를 줄달음쳐 살자.

이렇게 인생의 리정표를 세운 김진돌격대원들이 매일, 매 시각 심장으로 새겨보는 물음이 있다.

항일혁명투사 김진동지처럼, 전화의 영웅전사들과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기수들처럼 살며 일하고있는가?

그 물음앞에 실천으로 화답하며 김진돌격대원들은 순간의 답보도 없이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조경철

나의 일터, 나의 초소

동림고려약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지난 1월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한 그날 동림고려약공장 지배인 차명옥동무는 생각에 잠겨 공장의 내외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성실한 땀과 근면한 로동으로 건물 한동한동을 일떠세우고 설비 한대한대를 마련하면 잊지 못할 나날들이 그에게 감회깊이 되새겨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처음 10여명밖에 안되는 종업원들로 빈터에 말뚝을 박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며 기초파기, 블로크찍기, 축조 등을 하면서도 그들은 누구 하나 힘들다고 생각한적이 없었다.

하루빨리 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에 필요한 고려약들을 생산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모두가 하루일을 끝내고도 선뜻 작업장을 뜨지 못하였다.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간 제대군인들인 백영복, 김성일동무, 미장을 비롯하여 높은 기능을 요구하는 작업들을 솔선 도맡아 손색없이 질적으로 해제끼군 한 김영섭동무…

그들은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짧은 기간에 2층건물을 일떠세우고 설비들을 설치하여 고려약생산의 첫 동음을 자랑스럽게 울려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한 자그마한 성과였지만 제힘을 믿고 맨처 일어나 창조한 긍지가 어려있는 생산의 동음이여서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무척 자랑스럽고 귀중하게 여겨졌다. 그 동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그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줄달음쳤다.

한해, 두해가 지나면서 공장의 모습은 달라졌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면서 사무실과 문화선전실, 공무기지며 창고, 온실과 목욕탕을 비롯한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우며 거기에서 더없는 보람을 느낀 그들이였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종업원들도 바뀌였지만 애국의 후더운 땀을 바쳐 자기 초소를 더욱 빛내여가려는 고결한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지였다. …

새로운 눈으로 공장의 여러곳을 둘러보는 차명옥동무의 가슴에 굳은 결심이 자리잡았다.

(당의 의도에 비해볼 때 우린 아직 멀었어.)

다음날 공장에서는 최상의 위생조건과 환경이 보장되게 생산공정을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조항들을 이미 세웠던 올해 전투목표에 더 적어넣었다.

비록 힘은 들어도 그것이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영예롭고 중요한 일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한들거리는 벽제를 쌓고 한㎡의 미장을 해도 티없이 깨끗한 창심이 비끼게 마음을 썼고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도 정성을 기울였다.

어느날 공무기지앞을 지나던 지배인은 설비수리에 여념이 없는 수리공 전용수동무를 보게 되였다. 언제 보아야 누가 보건 맡은 일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안고 설비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 그였다.

제대 군관인 그가 오늘은 공장의 그 어떤 설비이든 속내를 제 손금보듯 환히 꿰들고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설비의 가동이자 생산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그는 시간을 아껴가며 기술도서들을 파고들었으며 기능공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가지 기술이라도 더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이도 있는데 좀 쉬염직 일하라고 하는 지배인에게 그는 웃으며 말하였다.

《저야 생산의 동음을 지켜가는 수리공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안고 공장종업원들은 하루하루를 혁신적성과로 이어갔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공화국창건일흔돐까지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열의에 넘쳐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진욱

관개수에 비낀 애국의 열정

삼천군관개관리소 일군들과 로동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혁명적기풍입니다.》

삼천군안의 협동벌들이 모내기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용을 쓰며 윙윙 돌아가는 양수기들의 거세찬 동음과 더불어 물길을 따라 흐르는 관개수는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려는 삼천군관개관리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비상한 각오와 완강한 실천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지난 1월초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를 잘 짓기 위한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협의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삼천군관개관리소 지배인 홍금철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수리해야 할 양수기와 전동기대수는 각각 10여대, 교체해야 할 철관길이만 해도 70여m…

그런데다 전력사정도 긴장했고 보수전투에 필요한 자재들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의 걸음은 저도모르게 부문당위원장에게로 향해졌다. 언제나 말없이 지배인의 사업을 든든히 뒤받침해주는 미더운 부문당위원장, 그와 마주앉으면 답답한 가슴이 확 열릴것만 같았다.

현장을 가까이하는 홍금철동무의 눈가에 작업의 쉼참 로동자들속에서 땀을 들이는 부문당위원장의 모습이 정답게 안겨왔다. 그의 열정적인 목소리도 어느때없이 반갑게만 여겨졌다.

논농사는 물농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한해농사에서 관개수보장을 맡은 우리 임무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족한것도 없는것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앉아만 있겠는가.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로동자들의 힘찬 목소리들이 울려왔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조건이 어려워도 마음먹기탓이다. 우리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전투원들이 아닌가.

홍금철동무는 가슴이 뭉클해옴을 어쩔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관개관리소에서는 관개시설들에 대한 대보수전투가 힘차게 진행되게 되였다.

관개관리소의 일군들은 단계별목표를 현실성있게 정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드는 한편 자재보장을 따라세우기 위해 밤이 닳도록 뛰어다니였다. 종업원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전투현장들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한번은 부속품가공과 철판조립을 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발동발전기가 뜻하지 않게 고장나는 바람에 관개시설들에 대한 수리정비기일이 예정보다 퍽 늦어진적이 있었다.

그때 공무동력작업반 반장 최영춘동무와 당세포위원장 신은균, 선반공 리주영, 수리공 박정철동무들은 수리한 발동발전기를 차에 싣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관개시설들에 대한 수리전투를 벌릴것을 결의해나갔다.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수리전투를 벌려가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고야말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이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기풍에 의해 그처럼 방대한 대보수전투는 짧은 기간에 결속되고 협동벌마다에는 생명수가 철철 흘러들게 되였다.

오늘도 삼천군관개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협동벌들에 대한 관개수보장에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갈 열의높이 하루하루를 헌신으로 빛내여가고있다.
—수도려객운수국 전차선로보수사업소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관중의 심금을 완전히 틀어잡은 조선의 교예

우리 나라 교예배우들 제1차 국제교예예술축전에서 금상 쟁취

로씨야의 쌍크뜨-페쩨르부르그에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된 제1차 국제교예예술축전에서 우리 나라 교예배우들이 축전최고상을 쟁취하였다.

이번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로므니아, 중국, 프랑스, 뽀르뚜갈 등 12개 나라에서 온 200여명의 교예배우들이 참가하였다.

체력교예《철봉과 그네날기》에 축전의 최고상인 금상이, 체력교예《그네중심》에 특별상이 수여되였다.

명예손님들과 심사성원들, 관중들은 우리 배우들의 훌륭한 출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이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씨야국가교예회사 총사장은 조선의 교예배우들은 독특하고 세련된 기술동작들과 화려한 률동으로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고 말하였다.

몽떼까를로국제교예축전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시기에도 느낀바이지만 조선은 그 어느 나라도 따를수 없는 교예의 왕국이다, 특히《철봉과 그네날기》는 다른 교예작품들과 비교할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다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주체교예예술의 자랑찬 모습을 보여주고 조국으로 돌아온 우리 교예배우들을 2일 평양국제비행장에서 판게부문 일군들과 예술인들이 따뜻이 마중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수리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5월 30일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바샤르 알 아싸드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문정남대사가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달라고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하페즈 알 아싸드 전 대통령에 의하여 두 나라사이의 력사적관계의 초석이 마련된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앞으로 조선을 방문하여 김정은각하를 만나뵈을 결심이다.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정치실력, 현명한 령도에 의해 최근 조선반도에서 커다란 긍정적사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온 세계가 환영하고있다.

김정은각하께서 최후승리를 이룩하시며 조선통일을 반드시 실현하실것이라고 확신한다.

수리아정부는 앞으로도 조선지도부의 모든 정책과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며 조선과의 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후대들을 위하는 뜨거운 진정

라선시 선봉콩우유가공공장 종업원들

얼마전 라선시 선봉지구 우암고급중학교의 한 일군을 통해 우리는 후대들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선봉콩우유가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소행을 알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고 하는것도 미래를 사랑하고 후대들을 위하여 투쟁하라는것입니다.》

우암고급중학교 토리분교는 우리 나라 최북단에 위치하고있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사랑의 콩우유차가 달리는 수도의 이채로운 모습이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이 외진마을에도 펼쳐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여기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본교에서부터 분교까지의 수십리구간은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 차가 드나들지 못하였다. 그래서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분교의 교직원들은 콩우유운반을 위해 힘든 걸음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사실을 두고 깊이 마음을 쓴 사람이 있었다. 선봉콩우유가공공장 지배인으로 갓 임명되여온 전광호동무였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아이들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나라의 보배들이고 조국의 미래가 아닌가.

그는 도로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즉시 현지로 떠났다. 콩우유를 제시간에 공급하자면 시급히 토리분교로 가는 수십리 도로를 개건해야 했다.

현지료해를 하고 돌아온 지배인은 이 문제를 당조직에 제기하였다.

지구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을 정히 받들어가려는 한 일군의 제기를 심중히 받아들이고 지구안의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을 발동하여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얼마후 번듯하게 닦아진 새 도로를 따라 콩우유차가 달리던 그날 토리분교의 학생들과 마을사람들은 우리 당의 고마움에 가슴적시였다.

분교의 어린 가슴들에 소중히 새겨진 사랑의 콩우유차가 그들의 글작품집에 그대로 반영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의 종업원들은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땀을 바칠 결의를 다지였다.

세해전 늘이다진 류례없는 물풍과 무더기비로 공장앞에 뜻하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그때 공장종업원들은 복구해야 할 방대한 일감보다 먼저 콩우유생산이 중단되게 된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린 끝에 그들은 생산설비들을 되살리고 공장을 원상복구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수십일만에 다시 콩우유생산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공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콩우유와 함께 빵도 생산보장하고있다. 어기에도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더 활짝 꽃피우기 위해 자체의 힘으로 석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장안에 빵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은 이곳 종업원들의 뜨거운 진정이 슴배어있다.

최근 시기 공장에서는 지구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콩우유생산지를 소비지에 접근시키기 위한 통이 큰 일판을 또다시 벌려놓았다. 두만강통에 분공장을 번듯하게 건설하여 현재의 생산지에서 100여리 떨어진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제시간에 질좋은 콩우유를 생산공급하자는것이였다.

헐치 않은 과제였다. 작업량도 방대하였지만 건설장이 멀리 떨어져있어 불가피하게 이동작업을 해야 했다. 게다가 건설에 필요한 모래와 세멘트를 비롯한 많은 건설자재를 전부 운반하여야 했다.

하지만 공장의 종업원들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그려보며 힘과 용기를 가다듬고 어려운 난관을 맞받아나갔다.

공장일군들은 현행생산이 바쁜 속에서도 건설장에 매일 나와 작업도 하고 자재보장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면서 대중을 혁신에로 불러일으켰다.

지구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공장종업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마침내 두만강동에 수백㎥의 량, 콩우유생산기지를 일떠세웠다.

며칠전 생산기지에서는 시험생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얼굴마다에는 후대들을 위해 또 한가지 좋은 일을 하였다는 긍지와 보람으로 하여 밝은 웃음이 피여올랐다.

후대들을 위해 스스로 일감을 찾아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는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고많아 내 조국의 미래가 더욱 창창한것이다.

본사기자 리승철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는 기수

회안청년탄광 1갱 채탄3중대 소대장 김경주동무를 두고 사람들은

대오의 앞장에서 달리는 기수라고 부르고있다.

지난 기간 소대가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은것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격로를 열어온 김경주동무의 헌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그의 모습은 소대원들의 가슴마다에 혁신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조국이 부르는 석탄전선으로 남먼저 달려와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때로부터 그가 바친 헌신의 땀방울은 그 얼마이랴.

짬시간마다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독학가인 그의 머리속에서 창안된 기술혁신안들이 석탄생산에 도움을 주고있다.

또한 그는 소대원들을 막장설비들에 정통하고 무슨 일에서나 막힘이 없는 기능공들로 준비시키고있다.

오늘도 김경주동무는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석탄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박재근

창조와 혁신의 숨결을 더해주는 군중문학창작열풍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을 한계단 높이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문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군중문학창작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금지의 비료생산기지인 흥남땅에 군중문학창작의 세찬 열풍이 일고있다.

몇몇 문학소조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종업원들이 작품창작사업에 너도나도 뛰여들고 그 과정에 수많은 군중문학작품들이 태여나고있는것이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또 하나의 자랑이다.

높은 목표를 점령할 때마다

온 련합기업소에 넘치는 문학작품창작열기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고 비료생산을 추동하는 하나의 중요한 비결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기업소의 당책임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기업소가 높은 목표를 점령할 때마다 더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군 합니다. 이 작품집들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그는 두권의 군중문학작품집을 우리에게 내놓았다.

한권은 흥남의 로동계급이 물전해공정개건현대화공사의 나날에 창작한 작품들이 실려있는 작품집 《전번의 새 아침》이였고 다른 한권은 카스화공정건설의 나날의 투쟁과 위훈을 노래한 작품집 《단숨에》였다.

작품집들에는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비료증산을 위해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함남의 불길을 《반일전가》를 몸소 창작하시여 모진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앙양기를 불러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문학작품창작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당의 의도대로 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은 결과 기업소안에는 작품창작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되였으며 일터와 함숙에서, 기대앞에서, 건설전투장들에서는 땀냄새가 풍기는 작품, 투쟁의 열정이 끓어번지는 작품들이 련이어 태여나게 되였다.

특히 기업소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제기될 때마다,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간고분투하며 내달릴 때마다 종업원들속에서는 더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그것은 그대로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전진하고 혁명적인 사상정신상태의 발현으로 되는것과 동시에 기업소가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추동력이 되였다.

투쟁도 생활도 작품마다에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창작되는 작품들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벅찬 시대의 숨결, 보람찬 투쟁과 생활에 대한 자부, 불타는 열정과 앞날에 대한 락관이 차넘치고있었다.

특히 작품들마다에서 어려오는 로동계급의 맛, 이것이 정말 좋다. 진심하고 생동한것으로 하여 보는 사람마다 들끓는 현장에서 창작된 작품들이 과연 다르다고 생각하게 하는 기본요인이 여기에 있다고도 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흥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린 글작품집 《10월명절 아침에》와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4돐을 맞으며 기업소의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동맹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올린 글작품집 《청년강국을 비료로 더욱 빛내리》를 보아도 그렇다.

작품집에 실린 시 《수령님과 비료 한줌》에는 비료 한줌을 쥐신채 이윽토록 놓지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종업원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충정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서정시 《10월명절 아침에》, 《흥남비료 그것은》, 《감이 익는 계절이 오면》, 《우리도 백두청춘으로 살리라》, 가사 《일복이 있대요》, 《나는야 흥남의 비료처녀》, 《비료로 받들자 우리의 청년강국》, 벅시 《붙트 하나하나》, 《만부하의 동음》 등에는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진실한 땀을 바쳐가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이곳 문학소조원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문학작품창작은 떼여놓을수 없는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였으며 생산전투의 나날은 그대로 작품창작의 나날로 되고있다.

그 나날에는 가지가지 사연들도 많았다.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하는 민족적사변들에 접할 때마다 로동자들이 저마다 축홍시를 적은 종이장을 들고 방송선전차로 달려가 격동된 심정을 토로한 일이며 밤을 새우며 용접불보라를 일구던 기능공이 교대작업을 마치자 바람으로 휴게실이 아니라 문학소조실에 달려와 시 《용접불보라 날린다》의 초고를 넘겨주던 일, 수백℃나 되는 발생로의 열기속에서 슬라크를 까내던 절사대원들이 시 《흥남비료 그것은》의 창작을 위해 함숙으로 가는 길에도 열기띤 합평회를 하던 일…

참으로 흥남의 로동계급이 당정책결사관철의 길에서 자신들의 충정의 마음과 열정적인 투쟁, 랑만적인 생활을 담은 문학작품들을 보며 우리는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오늘도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는 군중문학창작활동을 대중의 문화적소양을 높일뿐아니라 그들을 더욱 분발시켜 당이 제시한 비료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틀어쥐고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다.

김 수 정

조국청사에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운 혁명전통주제의 기념비입니다.》

항강도 혜산시에 있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찬란한 로정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대기념비로서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돐에 즈음하여 제막되였다.

탑신의 정면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흰 화강석기단과 나붓기는 기발을 형상한 붉은 대리석탑신과 그 두리에 60명의 인물들이 청동부각으로 형상된 부주제군상들로 이루어졌다. 탑의 높이는 38.7m, 옆면길이는 30.3m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형태의 기념비가 많지만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처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한 기념비는 없다고 하시였다. 또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는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력사도 깃들어있다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조선로동당의 역년 드놀지 않는 역사적뿌리이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라는 사상을 조형예술적으로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온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정면중심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것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의 카장 큰 사상예술적성과이다.

한손에 망원경을, 다른 손에 군도를 쥐시고 멀리 앞을 내다보시며 힘차게 걸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에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조직령도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수령님의 숭엄하신 풍모가 구현되여있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엄하신 풍모와 함께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였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좌우에 형상된 남녀대원의 모습에는 사령관동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기념탑의 동쪽면에는 뒤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부주제군상들인 《조국광복의 서광》, 《조국진군》, 《진격》을, 서쪽면에는 뒤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부주제군상들인 《무장을 위하여》, 《고난을 뚫고》, 《격멸》을 각각 형상하였다.

여러 부주제군상들은 매 인물의 형상이 생동하고 개성이 뚜렷한것으로 하여 보천보전투를 기본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과 그 대중적성격을 예술적으로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구령을 웨치는 지휘관, 총을 억세게 틀어쥔 녀대원, 꼬마유격대원, 활을 멘 소년과 경기관총수, 눈보라를 헤치는 유격대원에 대한 형상 등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류례없이 간고했던 항일전의 나날들을 그려보게 한다.

탑신은 우로 점차 올라가면서 좁아지게 처리하여 안정감과 균형미를 훌륭히 보장하였으며 뒤부분으로부터 앞으로 나오면서 조각의 크기를 점차 크게 하고 부각을 낮은 부각으로부터 높은 부각으로 처리하여 항일무장투쟁의 확대발전과정과 대중적진출기세를 조형적으로 강조하고있다.

진정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찬란한 로정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력사의 기념비로, 우리 나라에서 혁명전통주제의 기념비의 새 력사를 열어놓은 뜻깊은 창조물로 영원히 높이 솟아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룡

수 필

박사휘장을 두고

얼마전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새로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사휘장 수여식이 진행되였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번영의 시대에 박사휘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닌 우리 지식인들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밀어주어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박사휘장을 가슴에 달고 거리에 나서면 저저마다 박사라고 하면서 구면처럼 반가와하고 존경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시대의 각광속에 떠받들리우는 지식인의 긍지가 가슴가득 차오를수록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생각은 무엇인가.

보답!

온 나라가 다 알게 박사휘장을 가슴에 달아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참된 지식인이 될 새로운 포부와 결심이 자나깨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박사가 된 지식인들은 그 얼마이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에 학위학직수여제도를 수립하여주신 때로부터 어언 70년세월이 흘렀다. 해방후 우리 나라의 첫 학위학직증서를 애국적이며 랑심적인 지식인들에게 안겨주시고 언제나 제일 좋고 훌륭한것을 박사들, 지식인들에게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

수십년간의 고심어린 탐구끝에 새 품종의 작물을 육종해낸 처녀과학자가 그리도 대견하시여 손수 박사증과 박사메달을 안겨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신 이야기…

세계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합성섬유인 비날론을 발명한 리승기박사도, 새로운 피마주누에품종을 육종한 계응상박사도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였다. 위대한 어버이,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아래서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이 박사가 되고 평범한 인테리들이 조국이 알고 인민이 아는 참된 지식인들로 자라났다.

지식인이 되기 전에 받아안은 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줄 아는 백옥같은 량심의 인간이 되라, 박사휘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있다.

이는 단순히 높은 지식과 명예를 상징하는 표식이 아니다. 그것은 더 많은 일을 하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참된 지식인이 되기를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이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조국은, 시대는 우리를 이 부름앞에 세워주고있다.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지식인들의 대열앞에 우리를 부르고있다.

인민들은 우리 지식인들이 받고있는 성스러운 임무수행의 모든 성과들을 우리들의 박사휘장에서 지켜볼것이다.

우리들의 가슴에 자리잡은 박사휘장은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로 높뛰는 이 나라 지식인들의 심장의 박동으로 하여 더더욱 눈부신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문 재 흥

나날이 일신되는 교정

청진제2사범대학을 돌아보고

얼마전 우리는 청진제2사범대학의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당의 전략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교정의 면모를 나날이 일신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학을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합니다.

인재양성을 나무를 키우는데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과 같고 교육조건과 환경은 거름과 같습니다.》

정향꽃향기가 차넘치는 교정에서 우리의 눈길을 제일먼저 끈것은 새로 일떠선 대학체육관옆에 있는 구내공원과 야외학습터였다.

우리와 동행한 대학일군은 온갖 꽃이 만발한 구내공원과 야외학습터는 지금도 좋지만 록음이 짙은 한여름철에 대학교원들과 학생들이 즐겨찾는 곳이라고 말해주었다.

정양단풍나무, 은행나무, 찔광이나무, 해당화 등 각종 나무들과 꽃판목들이 선들바람에 흐느적거리는 모습과 돌배나무에서 떨어진 하얀 꽃잎들이 푸른 잔디우에 다문다문 남아있는 야외학습터의 풍치가 우리의 눈앞에 인상깊게 안겨왔다.

야외학습터옆에 있는 구내공원도 아주 특색있게 꾸려져있었다. 공부를 많이 하라고 책을 한가득 가져다주며 벙긋 웃는 엄마곰의 모습, 책상우에 책을 펴놓고 기뻐하는 꼬마곰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굴속에서 쿨쿨 잠을 자는 꼬마곰의 모습을 형상한 동물조각이 정말 웃음을 자아냈다.

그옆으로 얼마간 떨어진 곳에는 꿀꿀이부부가 귀엽한 호박을 톱으로 켜고있고 그옆에서 성미급한 쥐들이가 구유를 면채로 먹이감이 차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것을 형상한 동물조각이 있었다.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너구리와 아웅이의 조각, 지붕에 얹혀있는 박넝쿨우에 셈평좋게 앉아있는 까치들의 조각 등이 잣나무, 전나무, 황철나무들사이에 자리잡고있는 모습을 보느라니 꼭 동화세계에 온듯 한 느낌이 들었다.

의인화된 동물조각들이 정말 신통하다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대학일군은 그 조각들의 형상안을 박현태동무를 비롯한 여러 교원들이 착상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구내공원과 야외학습터는 물론이고 번듯하게 새로 일떠선 대학체육관에도 교직원, 학생들의 창조의 구슬땀이 깃들어있어 더없이 소중하게만 여겨진다고 하였다.

이윽하여 우리는 착공한지 여덟달만에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웠다는 대학체육관의 내부도 돌아보았다.

배구와 롱구를 비롯한 여러 구기종목의 경기도 하고 예술소품공연도 할수 있으며 대학적인 학과경연과 각종 모임도 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대학체육관을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 때 부닥친 난관이 많았다고 하면서 대학일군은 그때의 인상적인 일들을 이야기해주었다.

지붕트라스의 안전성을 검증하던 날 기뻐서 울고웃던 이야기, 진광성, 송수길, 김인국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교직원들이 각종 건재로 건물의 외부를 멋들어지게 장식하기 위해 애쓰던 이야기, 특색있는 조명등들을 자체로 창안제작하고 내부비품들도 정교하면서도 품위있게 만들던 이야기…

넘기기 힘든 고비도 많았지만 인재양성을 나무를 키우는데 비유한다면 교육은 토양과 같고 교육조건과 환경은 거름과 같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다시금 되새기며 모두가 힘과 용기를 내여 대학체육관건설을 빠른 기일내에 와닥닥 끝낼수 있었다는 대학일군의 이야기를 들고보니 하나하나의 시설물도 우리의 눈앞에 새롭게 안겨왔다.

잠시후 대학체육관에서는 교무행정일군들과 자연과학부 교원들간, 체육예능학부 학생들과 수학부 학생들간의 배구경기가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때짠 타격과 완강한 방어동작들도 볼만 했고 열광적인 응원분위기도 우리의 마음을 무척 즐겁게 했다.

경기가 끝난 후 체육예능학부의 최경식강좌장은 훌륭히 꾸려진 대학체육관에서 교육사업을 하니 학생들의 전공실기수준이 지난 시기보다 부쩍 올라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 잘 꾸려나갈 결심을 터놓았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랴.

우리는 혁명적랑만과 희열에 넘쳐 대학체육관을 나서는 이곳 교원들의 모습에서 더욱 면모가 일신된 교정의 래일,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될 우리 조국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백 성 근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황북종합대학 교원대학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강좌교원모두가 학위소유자로

선천교원대학 교육1학부 국어문학강좌의 교원들은 모두가 학위소유자들이다.

강좌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모든 교원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자면 자질이 높아야 하며 교원의 자질은 곧 교육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것을 깊이 새겨주었다.

강좌장을 비롯한 교육년한이 오랜 교육자들이 솔선 앞장에 서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가는것과 함께 신입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을 적극 도와주었다.

신입교원들은 교육년한이 오랜 교원들의 풍부한 교수경험과 학위론문발표경험을 들으면서 신심을 안고 론문집필사업에 달라붙었다. 그리고 사색과 탐구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가치있는 학위론문의 종자를 잡고 자료작업을 충분히 한 기초우에서 집필전투를 벌려나갔다.

그 과정에 강좌의 모든 교원들의 자질이 훨씬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교수의 질이 개선되여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렇게 모두가 아글타글 노력한 결과 강좌의 교원들모두가 학위를 소유하게 되였다. 이들은 지금 이룩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교수방법을 부단히 혁신하여 교수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혜 명

민족의 자랑—세계최초의 금속활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에서 금속활자를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낸것도 우리 민족이라는것을 누구든지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이 인류의 과학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발명들가운데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도 있다.

우리 민족은 12세기 전반기에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업을 크게 발전시켰다. 금속활자의 발명은 고려인민들의 무쌍한 노력과 탐구의 결과이며 고대로부터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높은 금속가공기술이 낳은 열매였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는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발굴되였다.

고려시기 황궁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금속활자들은 서체상특징으로 보아 그 주조시기가 12세기 전반기부터 13세기 전반기로서 바로 이때가 고려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금속활자의 주조를 진행하던 시기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고려시기 이름난 문인이였던 리규보가 쓴 《동국리상국집》에는 《고금상정례》라는 책의 서문을 1234년부터 1241년사이에 강화도에서 금속활자로 28부를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세계적으로도 금속활자의 사용과 관련한 가장 오랜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고려사》를 비롯한 력사책들에 여러 불경책들을 금속활자를 리용하여 찍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13세기 초엽에 이르러 금속활자를 리용한 인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널리 진행되였으며 고려에서 금속활자의 발명시기는 늦어도 12세기 전반기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유럽에서는 15세기에 이르러서야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리용하였다는것을 놓고볼 때 고려에서의 금속활자발명시기는 그보다 수백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발명국이라는것은 력사기록자료들과 함께 현존하는 가장 오랜 금속활자인쇄물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금속활자로 찍은 책들가운데서 가장 오래된것으로 전해지고있는것은 1377년 고려에서 출판된 《직지심경》이라는 책이다.

주체61(1972)년 유네스코의 주최밑에 《국제도서의 해》의 행사로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책의 력사》종합전람회에 이 책이 전시되였는데 현존하는 금속활자인쇄물로서는 제일 오래된것으로 평가되였으며 이것이 각국에 통보되였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훌륭한 창조와 발명으로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여온 슬기롭고 재능있는 인민이며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문화유산으로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으로 된다.

김일성종합대학 문화대학 연구사 신 철 수

유압전동식풍력발전기의 리용

최근 풍력발전기가 대형화로 발전하면서 유압전동계통을 리용한 유압전동식풍력발전기가 주목되고있다.

일반적으로 대형풍력발전기에서는 풍차가 매우 느린 속도로 회전한다. 그러므로 일반발전기를 리용하려면 증속비가 큰 다단치차증속기를 탑우에 설치해야 한다. 이 증속기는 대체로 질량이 매우 크고 고장률도 높은 결함이 있다.

풍차축에 회전수가 작은 영구자석발전기를 련결하는 방식도 개발도입되고있다. 그러나 영구자석발전기는 질량과 체적이 매우 크고 가격도 높은것으로 하여 현실도입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을 극복하여 개발된것이 유압전동계통을 리용하는 유압전동식풍력발전기이다. 이 풍력발전기는 다단치차증속기대신 유압뽐프와 유압원동기로 이루어진 유압전동계통을 리용하였다. 유압뽐프는 풍차의 회전운동에네르기를 유압에네르기로 전환하며 유압원동기는 유압에네르기를 다시 회전운동에네르기로 전환하면서 발전기를 돌린다.

대형풍력발전기에 유압전동계통을 리용하면 여러모로 좋다.

우선 탑우에 설치되는 장치들의 질량과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차전동식의 풍력발전기는 탑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고 설치비용도 많이 드는 반면에 유압전동계통은 치차증속기에 비해 질량이 훨씬 작으므로 안정성측면에서 우월하다.

다음으로 값비싼 주파수변환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주파수가 안정한 전력을 생산할수 있다.

최근에 여러기의 풍차에 설치한 유압뽐프들을 하나의 유압원동기—발전기계통에 련결하는 발전체계도 개발되고있으며 이런 체계를 받아들이면 설비투자를 더욱 줄일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새 기술소식

저탄소농업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온실효과가스의 대량적인 방출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생태환경이 심히 파괴되고 인류의 생존활동이 크게 위협을 받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저탄소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주목을 돌리고있다.

저탄소농업은 농업생산과정에서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최대로 줄이면서 경제와 환경보호, 사회생활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새로운 농업발전방식으로서 저탄소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부문에서 생기는 온실효과가스에는 중요하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이 있다.

2012년 자료에 의하면 논밭갈이와 씨뿌리기, 물대기, 수확 등 영농과정에 소비되는 연료와 화학비료, 농약에 의하여 방출되는 온실효과가스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매해 1억 5 000만~2억에 달한다고 한다.

2014년 어느 한 나라의 자료에 의하면 대기속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20%, 메탄가스의 70%, 아산화질소의 90%가 농업생산과정에 생겨난다고 한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저탄소농업을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방도로 인정하고 그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우선 저탄소농업발전목표와 발전대책을 세우고있으며 또한 저탄소농업의 발전수준을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저탄소농업은 온실효과가스방출량과 에네르기소비, 환경오염을 최대로 줄이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화학비료사용량을 줄이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농기계사용에서 연유소비량을 낮추어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줄이는것이다. 또한 농업용수를 절약하고 물리용률을 높이며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량을 줄이는것이다.

본사기자

새로 등록된 천연기념물들

산좋고 물맑은 우리 조국강산에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천연기념물들이 매우 많다.

최근에 특이하면서도 보존가치가 큰 여러 대상이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되여 내 조국의 아름다운 풍치를 더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된 룡악산샘물은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샘물이다.

만경대구역 원로리의 룡악산기슭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은 오래전부터 맛과 수질이 좋아 진강장수에 널리 리용되여왔다.

원로리란 지명은 예로부터 물이 좋아 이 마을에 장수자가 많다는데로부터 유래되였다. 룡악산샘물을 마시면 오래 산다는 소문이 나서 숱한 사람들이 룡악산에 올라가서 물을 마시군 하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룡악산샘물이 좋은데 대하여 여러차례 교시하시였다.

룡악산샘물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샘물맛도 보아주시며 물맛이 괜찮다고 하시였다.

지금으로부터 몇해전 룡악산샘물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맛좋고 질좋은 샘물을 보내주시려고 마음쓰시며 공장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순간도 잊지 말고 높은 생산성과로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여가야 한다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룡악산샘물은 국가적으로 보호관리되여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후세에 길이 전해갈것이다.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화로금샘물도 특이한 유용성분들이 많은 진귀한 샘물인것으로 하여 리용가치와 학술적의의가 크다. 화로금샘물은 정성시 화로리에 있다. 약간의 금, 은, 셀렌 등이 들어있는 화로금샘물은 회합도가 8인 천연소분자물이다.

건강장수와 치료에 적극 리용되고있는 화로금샘물은 매우 희귀한 장수샘물인것으로 하여 그 리용 및 보존가치가 대단히 크다.

금야황철나무도 천연기념물로 새롭게 등록되였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의 중대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서 자라는 황철나무를 바라보시며 뜻깊은 교시를 남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전에 수백년 자란 나무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느리나무였다고, 이 황철나무는 오가산자연보호구에 있는 수백년 자란 나무들과 크기나 자란 기간에 있어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이 나무의 높이는 38m, 나무갓너비는 동서방향으로 26m, 남북방향으로 26.5m나 된다.

금야황철나무는 우리 나라 황철나무들중에서 크고 오래 자란것으로서 학술적의의가 크며 국가적으로 적극 보호관리되게 된다.

본사기자

자주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리정표인 판문점선언을 신속히 리행하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앞당기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 남측, 해외본부 공동결의문

자주통일의 문이 활짝 열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이 채택되였다.

판문점선언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계승하여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력사적리정표이다.

판문점선언은 오랜 세월 지속되여온 분렬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여는 자주통일의 리정표로서 민족자주선언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선언이며 평화선언이다.

특히 지난 5월 26일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상징으로 력사에 아로새겨진 판문점에서 또다시 진행된 제4차 북남수뇌상봉은 우리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고 북남관계발전을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력사적계기로 된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북, 남, 해외본부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8천만 겨레와 함께 열렬히 환영하며 민족공동의 이 귀중한 합의를 하루빨리 리행해나갈 굳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새로운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판문점선언을 적극 실천해나갈것이다.

판문점선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확고한 지향을 담은 력사적인 선언이다.

범민련은 겨레의 운명을 위협하는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갈것이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개척해나가자!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 평화와 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자!

2.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반드시 성사시켜 전민족적 통일대회합성사의 기반을 마련해나갈것이다.

판문점선언에서는 6.15를 비롯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의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범민련은 판문점선언에서 천명된 민족공동행사들을 성사시켜 북과 남의 화해와 협력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민족의 대단합과 자주통일의지를 한껏 높여나갈것이다.

북남공동행사와 각계층의 접촉과 래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선별불허》되는것을 반대하며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수 있도록 투쟁해나갈것이다.

범민련은 민족공동행사의 성과적개최를 통해 앞으로 온 민족의 힘을 모으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성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갈것이다.

3. 민족분렬로 발생된 인도적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설것이다.

범민련은 민족분렬과 반민족적인 대결로 인하여 발생된 인도적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며 민간교류와 협력을 적극 활성화해나갈것이다.

반통일대결분자들의 집권시기에 조작된 《5.24조치》를 비롯한 각종 《대북제재》와 북과 남의 협력과 교류를 막아나서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다.

4.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폐지시키고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다.

아직도 남북에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민족대단결과 자주통일운동을 《리적》으로 몰아 불법시하는 《보안법》이 그대로 존재하고있다.

판문점선언과 《보안법》은 한시도 공존할수 없다.

범민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발전을 가로막고있는 가장 큰 장애물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폐지하기 위해 적극 투쟁할것이다.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범민련 남측본부를 더이상 불법화할 근거는 없다.

우리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실천하여 범민련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반드시 실현할것이다.

5. 범민련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와 평화협정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것이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보장과 자주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운명문제에 더이상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야 한다.

미국이 북을 겨냥한 적대행위와 유엔의 간판밑에 감행하고있는 모든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평화협정체결에 즉각 나서도록 온 겨레가 투쟁해야 한다.

민족의 통일과 단합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하여 우리 민족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떨쳐나서자!

범민련 북, 남, 해외본부는 온 겨레와 힘을 모아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열렸다 분렬의 장벽, 넓히자 평화의 대로, 달려가자 통일의 결승선을 향하여!

민족자주의 한길에서 통일대업을 기어이 이룩하여 강성번영의 새봄을 더 활짝 꽃피워나가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2018년 6월 2일

조선은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국제사회계가 격찬

과학과 교육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으면서 강대한 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은 국제사회계의 이목을 모으고있다.

민주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는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 구호 하나만 놓고서도 보다 휘황찬란하게 변모될 조선의 앞날을 그려볼수 있다.

조선은 가까운 시일내에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동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려 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의 구상은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는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사업에서도 대혁명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나가는 조선의 앞날이 기대된다.

앙골라창의고안가협회 총서기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봉쇄속에서도 조선이 끄떡없이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있는것은 교육과 과학기술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것을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기때문이다. 우리도 조선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자말루르지부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의 교육제도는 우월하고 선진적인 제도이다.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도 정연하게 세워져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공부하고있다.

최근 조선이 거둔 성과들은 모두 국내과학자, 기술자들의 노력에 의한것이다. 특히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조선의 사회주의교육체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로씨야의 테레-로쓰통신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과학기술을 중시하시며 그 실현을 위하여 과학연구기관들을 찾고 찾으신다, 그이의 지도밑에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이 높은 속도로 실현되고있으며 모든 분야에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있다, 최고령도자의 정치는 새로운 기적창조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에 활력을 부어주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인터네트신문 《비다 이 아르떼》는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국가정책으로 철저히 구현되고있는 조선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리해하기 힘든 현실들이 수없이 펼쳐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에서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고있다.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수백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공부시킨다는것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조선이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히 부유해서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하는것이 아니다.

조선에서는 학교교육뿐아니라 사회교육,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 등 온갖 형태의 교육도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처럼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기초하여 조선은 사회주의강국, 분명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민주룩고대학생 및 학생련맹 대표단 단장은 조선의 과학기술전당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어른들뿐만아니라 학생소년들도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는 이곳은 말그대로 과학의 대전당이다.

과학기술정보봉사능력과 교육조건을 원만히 갖춘 배움의 전당에서 어린이들까지 열심히 학습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느껴지는바가 크다.

조선은 미지않아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으로 세계만방에 빛을 뿌릴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들 일본당국의 조선학교차별책동에 항의

재일동포들이 5월 13일 히로시마시에서 일본정부와 히로시마현, 시당국이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고 보조금지급을 재개할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지난해 7월 19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가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일본정부에 항의하여 제기한 재일동포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후 매달 19일마다 동포단체들은 일본단체들과 함께 당국의 부당한 차별책동을 규탄하여 거리에서 투쟁을 벌려오고있다.

먼저 진행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조선학교차별책동에 대한 항소심재판을 앞두고 그동안 일본사회와 인민들에게 일본정부와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당국의 조선학교지원제도적용제외, 보조금지급중지결정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지원문제해결을 위하여 투쟁을 진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당국이 부당한 조선학교차별책동을 중지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거리에서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비내리는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1시간동안이나 거세드높이 행진하는 참가자들의 투쟁모습에 감동된 재일동포들은 물론 일본인민들과 외국인들이 적극 지지하며 고무해주었다.

박정희역도의 《유신》독재악법 폐지

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5월 28일 박정희역도의 《유신》독재통치의 적폐인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였다.

이날 폐지된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은 1972년 《유신헌법》하에서 박정희역도가 자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종신대통령제》를 수립하기 위해 조작한 악법의 하나이다.

《유신헌법》이 박정희역도의 장기집권의 발판이 되였다면 이 악법은 그를 뒤받침해준 도구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것도 《유신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기관이였다.

결국 역도는 자기가 의장직을 가로타고앉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발동하여 《대통령》자리에 올랐으며 종신권력을 휘두를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신문은 박정희가 암살된 후에도 악법이 살아남아 최규하,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도 활용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46년만에야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장기집권도구가 사라졌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방송 허위보도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장

남조선 《CBS》방송이 5월 31일 언론계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허위보도가 걷잡을수없이 늘어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방송은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하여 북에 대한 위재출처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자료들이 대량보도되고있다고 까밝혔다.

이러한 보도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뿐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방송은 주장하였다.

방송은 또한 보수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있는 허위보도량은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고 비난하였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만든 보도는 사회의 공공질서를 문란시키고있다고 방송은 강조하였다.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행위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북남대결의 력사에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길을 뚜렷이 밝혀준 자주통일의 리정표로 열렬히 격찬하면서 그 리행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군부세력은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외면하고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에 배치되는 구태의연한 대결음직임을 계속 보이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부는 하와이주변해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20여개 나라들의 참가하에 벌어지는 《림팩》합동군사연습에 3척의 함정과 비행기, 7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오는 8월에 있게 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서도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될것이라고 공언하고있다.

남조선군부세력의 군사적대결책동은 북과 남이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하기에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통해 군사적긴장상태의 완화와 전쟁위험의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간다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확약한것이다.

하지만 남조선군부세력의 행위는 거기에 명백히 배치된다.

《림팩》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할 목적으로 진행되여온 침략적인 전쟁연습으로서 랭전시대의 산물이다. 호전광들이 대규모의 《림팩》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을 때마다 그 무슨 《특정한 나라를 가상하지 않았다.》느니, 《기량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이 전쟁연습의 범죄적이며 도발적인 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다.

외신들은 《림팩》합동군사연습이 《해상교통안전확보》, 《테로에 대한 공동대처》의 간판을 달고있지만 최근에는 조선을 가상한 《해상봉쇄》와 《해상, 수중으로 부터의 강습상륙》연습이 늘어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특수잠수정에 의한 해안에로의 침투》 등을 포함한 《림팩》합동군사연습이 조선과 그 주변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까밝히고있다.

호전광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대도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림팩》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은 가려질수 없다. 남조선군부세력이 다국적무력의 참가하에 벌어지는 이런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것은 외세와 공조하여 우리와 힘으로 맞서려는 범죄적흉계의 산물로서 그들이 판문점선언이 아니라 군사적대결각본의 실행에 나서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자면 무엇보다도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이 중지되여야 한다.

남조선군부세력이 외세와 함께 감행하는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이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을 가로막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여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좋은 분위기가 종당에는 싸늘한 대결의 찬서리를 맞고 사라지지 않으면 안되였던 비극적사태의 배경에는 언제나 남조선호전광들이 외세와 함께 감행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이 있었다.

지금 북과 남에는 서로 손잡고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하여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나서고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군부가 동족을 겨냥한 위험한 전쟁연습에 참가하고 그로 하여 조선반도정세에 엄중한 후과가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는가.

남조선군부는 마땅히 그에 대해 심각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랑립될수 없다.

본사기자 박철준

보수어용나팔수에게 차례진 응당한 징벌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와 최순실년이 공모결탁한 부정추문사건을 폭로한 《JTBC》방송사 사장 등을 모해하고 협박한 보수언론인 《미디어워치》의 대표고문 변희재가 민심의 징벌을 받았다.

알려진바와 같이 2016년에 유선종합방송인 《JTBC》는 최순실이 버리고 달아난 콤퓨터에서 박근혜의 연설문초안과 최순실이 그것을 수정한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여 공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박근혜, 최순실의 부정추문행위가 내외에 알려지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매당의 어용나팔수인 변희재는 순실이 버리고 달아난 콤퓨터에서 박근혜의 연설문초안과 최순실이 그것을 수정한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여 공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박근혜, 최순실의 부정추문행위가 내외에 알려지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매당의 어용나팔수인 변희재는 《JTBC》방송이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하여 개인용콤퓨터를 입수한 후 자료를 조작하고 최순실이 사용한것처럼 보도했다.》고 외곡한 글을 책과 사회망에 편집하며 여론을 오도하였다.

지어 이자는 《JTBC》방송사와 사장의 집앞, 그의 가족이 다니는 곳에서 쌍레들과 시위높음을 벌려놓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다 못해 그에게 《면사체로 발견될수 있다.》고 하면서 생명까지 위협하여 사장과 가족이 극심한 심리적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게 하였다고 한다. 초불민심을 거역하며 허위자료들을 류포하면서 발광하던 이자는 보수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요구에 의해 5월 30일 감옥에 처박히는 징벌을 받았다.

대전시에서 화재사고 발생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5월 29일 대전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순식간에 2명의 로동자들이 죽고 3명이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의 베이징과 상해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세관초소들에서 최근 비법적인 폐기물수입행위들에 대한 단속사업을 진행하였다.

세관당국은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합성수지와 금속을 비롯한 폐기물을 밀수한것으로 하여 모함 13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시기 중국은 폐기된 합성수지와 금속 등을 대량적으로 수입하여 재생리용하여왔다.

그러나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지난해에 폐기물수입을 대폭 규제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단속사업은 그 조치의 일환이라고 한다.

여러 나라에서 테로반대투쟁

나이제리아군대가 5월 15일 차드호부근에서 대규모테로소탕작전을 개시하였다.

작전은 이 지역에 둥지를 틀고있는 테로조직인 보코 하람을 완전히 소탕하는데 목적을 두고 4개월동안 진행된다고 한다.

같은 날 파키스탄의 판잡주와 발루치스탄주에서 온갖 테로를 일삼던 3명의 무장악당이 체포되고 많은 무기와 탄약이 압수되였다.

파키스탄의 반테로군이 5월 27일 판잡주에서 테로소탕작전을 벌려 6명의 악당을 처단하였다.

최근 튜니지의 동부지역에서는 국제테로조직과 련계를 가지고 테로를 일삼던 13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였다.

에짚트의 시나이반도에서 최근 테로소탕작전이 벌어졌다.

5월 29일 이 나라 군부가 밝힌데 의하면 작전과정에 테로분자 8명이 처단되고 테로분자들의 80개의 은신처, 약 100대의 륜전기재가 파괴되였다.

올해 2월초부터 현재까지 소멸된 테로분자들의 수는 280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분쟁의 희생물로 되고있는 어린이들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벌어지고있는 무장분쟁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들의 처지가 날로 악화되고있다.

얼마전 유엔아동기금은 민주콩고의 까사이주에서만도 5살미만 어린이 약 77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그중 40만명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는 2016년에 시작된 정부군과 반정부계 민병사이의 전투로 수많은 어린이들이 집을 잃었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몇달동안이나 의료봉사를 받지 못하였거나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인도주의지원을 당장하지 않으면 어린이사망자수가 급격히 늘어날것이라고 한다.

분쟁에 시달리고있는 예멘에서도 어린이들의 처지는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에서 지속되고있는 무장분쟁으로 지난 3월현재 1100만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나 질병에 걸려있다고 한다. 그중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의 수는 3년전에 비해 배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지금 분쟁에 시달리고있는 나라들에서 어린이들은 항시적으로 생명안전의 위협을 받고있는데다가 배움의 권리까지 빼앗기고있다.

분쟁과정에 배움의 터전인 학교가 표적이 되여 형체도 없이 파괴되고있다. 학생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총포탄세례가 무서워 등교를 포기하고있다.

예멘에서는 내전으로 2500개이상의 학교들이 파괴되였다. 그나마 성하다고 하는 학교들은 피난민들의 거처지로 변하였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것을 단념하였다.

한 국제기구는 이 나라에서 전국적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있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더 많은 어린이들의 배움의 길이 막혀버릴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계속되는 무장충돌로 지난해에 860여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였다.

무장분쟁으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은 비단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반정부세력의 주되는 랍치대상이 되여 인간방패로 리용되고있다. 그들중 대부분이 죽거나 불구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전장에 끌려나가 총알받이로 되고있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수는 수천수만을 헤아리고있다. 지어 분쟁지역에서 어린이들은 강간과 강제결혼, 랍치, 노예의 대상으로까지 되고있다.

어린이들은 미래를 떠메고나갈 주인공들이다.

행성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분쟁의 희생물로 삼아 죽이거나 불구자로 만드는 참극이 계속되여서는 안된다.

정견과 신앙, 당파사이의 의견상이를 초월하여 분쟁을 끝장내고 어린이들의 생명안전과 꿈을 지켜주어야 한다.

오늘 유엔과 아프리카동맹을 비롯한 여러 기구들과 많은 나라들에서 분쟁문제해결을 위해 분쟁세력들사이의 협상을 중재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어린이문제를 동반하는 피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도 국제적인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분쟁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는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고 어린이들의 밝은 앞날을 지켜주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라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해준다.

본사기자

추문사건으로 뒤흔들리고있는 일본정국

일본집권층이 재무성 사무차관의 성희롱추문사건으로 곤경을 치르고있다. 일반사무원도 아닌 재무성의 중요직책을 맡고있는자의 행실치고는 너무나도 경박한것으로 하여 온 일본땅이 들끓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4월 재무성 사무차관이 녀성기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사무차관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수상 겸 재무상 아소도 성희롱사실을 확인할수 없다고 하면서 말로 주의를 주는것으로 금때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피해자가 일하고있는 잡지사에서는 인터네트로 음성자료를 공개하였다. 일본사회계는 성희롱사건을 부정하고있는 사무차관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난감한 처지에 빠진 사무차관은 《결백함을 밝히고싶지만 현 상황에서는 직책을 수행하기가 곤난하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남기고 황급히 사임하였다.

사임 그자체가 자기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인정이나 같다. 진짜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때문에 사임하겠는가.

사무차관의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였다. 사회계의 엄한 눈초리는 무수상 겸 재무상인 아소에게로 쏠리였다. 야당들은 사무차관을 계속 비호한 아소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사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립헌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들은 재무상이 사임할 때까지 국회의 일정협의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일본국회 참의원에서는 야당의원들이 결석한 상태에서 결산심의가 진행되는 희비극이 벌어졌다.

사무차관의 사임으로 일본정계는 조용해진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해졌다.

성희롱과 관련한 록음자료가 공개되자 아소는 사건의 진상을 해명한다는 미명하에 《성희롱피해자가 있으면 이름을 밝히라.》는 식의 조사방법을 고안해냈으며 그 해명을 재무성의 고문변호사에게 맡기였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타격을 가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한 외신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나설 경우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조사방법을 주장하는것은 강제적으로 입을 틀어막으려는것과 같은것이라고 단죄하면서 폭재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해버리는 수법을 현상시킨다고 비난하였다. 프랑스의 한 통신은 《일본은 녀성들의 정치참가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들중의 하나이다.》라고 야유하였다.

아소의 사임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이 도쿄와 삿포로시 등 전국적인 범위에로 번져졌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항의행동에서 참가자들은 《아소의 발언은 가슴을 아프게 하고있다.》, 《성희롱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무성청사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바람이 부는 속에서도 항의행동을 벌리였다. 그들은 사무차관의 성희롱범죄를 부정한 아소가 자격이 없으며 반성하고 사임해야 한다고 주먹을 흔들었다.

여러 단체들도 아소의 망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성희롱피해로 고통을 받는 녀성들을 힘으로 억압하려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녀성들이 살기 힘든 사회로 되고만다고 규탄하였다.

일본집권계층의 녀성천시행위는 일본의 정치수준을 가늠할수 있게 해준다. 일본국내에서 정권운영능력을 상실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지난 시기부터 녀성들이 활약하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곤잘 외워온 아베가 할 말이 없게 되였다. 녀성천시사상을 뿌리뽑지 않는 한 그것은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최근에 여러 무정추문사건이 폭로되여 골머리를 앓고있는 현 일본집권계층이 성희롱추문사건으로 또다시 정치위기에 시달리고있는것은 부패한 일본의 정치실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정원준

ㄱ-181087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말소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